

# 차별화된 설계로 만나는 스마트한 조경공간

## 아파트의 미학(美學)<4>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지난 1월 준공...1497가구 23개동  
래미안 최초 '클라우드 시스템'  
구형·체육센터 등 접근성 훌륭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랑하는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트라펠리스, 하이퍼리온 외에도 양천구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지난달 28일 지하철 2·9호선 당산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를 찾았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도심으로 출근하기 위해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내려 환승하거나 버스를 이용해 5호선 목동역으로 가야한다.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조경

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랑하는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지난 1월 준공됐으며 총 1497가구 23개동 규모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답게 정문 앞에는 입주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3.3㎡ 당 평균분양가는 2398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전용면적 59㎡가 14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먼저 A블록(1동~18동)의 조경을 살폈다. 단지 내부가 깔끔하게 조성됐다. 이 아파트의 조경은 경사지에 있는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차별화된 설계로 스마트한 조경 공간을 조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경사지에 조성된 단지의 지형을 고려해 구간별로 ▲석가산 ▲화계(花階) ▲송림(松林) 등의 경관으로 구현했다. 수경 시설과 수목 군락을 입체감 있게 배치해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5m가 넘는 웅벽 구간에 조성된 석가산에는 래미안 최초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해 일반 안개 노즐보다 더욱 미세한 사이즈로 수분이 분출돼 가벼운 입자가 위로 떠올라 구름 같은 시각적 연출이 가능하며, 주변 공기의 일시적 냉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내 파고라, 조형가벽 같은 시설물에는 나무와 꽃잎 등 자연에서 유래한 패턴을 적용해 디자인했다. 지반의



높이에 따라 각각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가로수길과 곳곳에 수려한 수목, 미술품, 조형 소품을 배치했다.

신축 아파트답게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구성됐으며 조경 시설 옆에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배치된 휴게공간이 마련됐다.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A블록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카페테리아, 스터디룸, 독서실, 어린이집, B블록에는 독서실과 어린이집,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서 있다.

B블록인 19동부터 23동까지는 길 건너에 위치해 있다. 각종 조형물과 휴게공간이 마련돼 쾌적함을 더하고 있다. 단 몇몇 재활용수거공간의 경우 휴게

공간 옆 혹은 아파트 현관 입구 앞에 배치돼 있어 아쉬웠다.

단지 인근에 운동시설, 산책로 등이 조성된 약 44만㎡의 계남근린공원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평이다. 양천구청, 주민센터, 체육센터 등과도 접근성이 좋으며, 율하반기 준공 예정인 목동 메디컬 복합센터도 도보생활권 내에 자리할 예정이며 목동 학원가와도 인접하다.

삼성물산 분양관계자는 "래미안 목동아델리체는 목동생활권 내에서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이자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래미안 브랜드, 특화설계, 미래가치 등을 갖춘 알짜배기 아파트"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96> 프랑스 5대 샤또 와인

"막 들이대며 쳐들어오는 신세계 와인의 과일향이 없어. 절제하고 강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진지한 와인이야."

와인애호가들이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있다. 와인을 시작했다면 죽기 전에 꼭 마셔보겠다는 '버킷 리스트'의 와인. 바로 프랑스의 5대 샤또 와인이다.

때는 185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파리 세계 박람회 당시 보르도 상공 회의소는 메독 지역의 최고 레드 와인에 대한 공식적인 와인 목록을 요청받고 등급 분류에 나선다. 이 가운데 1등급을 받은 샤또 마고와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라투르, 샤또 무퐁 로칠드, 샤또 오브리옹 등이 5대 샤또다.

요즘 와인 유튜브 가운데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와인킹'이 5대 샤또의

## 5대 샤또에 대한 환상과 진실

와인을 시음하는 영상을 올리며 와인 애호가들의 마음이 술렁였다.

와인킹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거주하며 와인 관련 유럽석사학위를 가진 와인전문가다. 그는 전 세계에 몇 백명 되지 않는다는 최고의 와인전문가 마스터 오브 와인(Master of Wine)들과 와인을 맛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고가의 와인도 마시지만 저가의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내놓으며 종종 스승인 마스터들을 골탕먹이기도 하는 것이 재미 요소다.

이번 5대 샤또 시음 역시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진행됐다. 피터 코프는 마스터 오브 와인답게 "조화미가 있고, 복합적이고 섬세해 구대륙 와인의 정수"라며 바로 보르도 최고의 와인임을 알아챘다.

샤또 라피트 로칠드와 샤또 오브리옹은 2014년 빈티지였다. 2014년은 보르도 날씨가 좀 서늘했다. 과일향이 섬세하다 보니 와인을 만들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피터는 오히려 이 점을 좋게 봤다. 그는 "라피트 로칠드는 빈티지가 좋은

면 힘이 지나치지만 빈티지가 좀 안 좋으면 다른 와인들보다 좋다"고 평했다. 그가 베스트로 꼽은 와인은 샤또 오브리옹이었다.

샤또 라투르와 샤또 무퐁 로칠드, 샤또 마고는 2012년 빈티지였다.

5대 샤또가 대부분의 와인애호가들에게 꿈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명성만큼이나 비싼 가격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구하려면 각각 100만원을 웃돈다 5명이면 최소 500만원이다.

등급 분류가 1855년이었으니 160년이 넘게 지났다. 게다가 등급은 부르고뉴와 달리 포도밭이 아니라 개별 샤또에 주어진 것이다. 특정 포도밭에 매겨졌다면 품질이 어느정도 보장되었지만 소위 브랜드 같은 샤또에 매겨졌으니 해당 샤또가 마음먹기에 따라 포도밭을 넓혀 생산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던 얘기다. 현재의 와인 품질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와인 시장에서의 이 등급 분류는 여전히 견제할 셈이다.

그래서 마셔봤냐고? 마셔봤다. 연말 성과급처럼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었



유튜버 와인킹(왼쪽)과 스승 피터 코프가 5대 샤또의 와인을 시음하고 있다. /와인킹 유튜브 화면 캡처

다. 8명이 돈을 모아 만든 자리다 보니 딱 한잔씩이었지만 말이다.

샤또 마고와 샤또 오브리옹은 2015년 빈티지. 평론가들이 보르도 최고라고 평한 빈티지다. 샤또 라투르는 1983년, 샤또 라피트는 1964년, 샤또 무퐁은 1978년이었다.

감상평은 파티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파티장을 빠져 나온 느낌이랄까. 2015년은 그레이트 빈티지다 보니 제대로된 모습을 보여주지 전에 다 마셔버리고 말았다. 아무래도 다음 5대 샤또는 와인킹처럼 병째 마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smahn1@



(왼쪽부터)샤또 라피트 로칠드 1964년, 샤또 무퐁 로칠드 1978, 샤또 라투르 1983년, 샤또 마고 2015년, 샤또 오브리옹 2015년.

/안상미 기자

##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文대통령 "예비군, 국민과 가장 가까운 안보역량" /사진 뉴시스
- ▲ 미얀마 신한은행 차량 총격...교민 안전 조치 강화



- ▲ 민주당 '투기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직권조사
- ▲ '을왕리 벤츠 만취 사망'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징유 /사진 뉴시스

- ▲ 월성원전 자료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 ▲ '정치검찰' 오해살라...김학의 의혹 등 선거후 수사 속도